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 포

2026. 7. 13.(월)

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, 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7.12.(일) 아시아경제는 「‘교부금 축소’ 우려 일파만파... 벼랑 끝 내몰린 지방교육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정부 일각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자, 지역 교육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다”고 하면서,
 - “현장에서는 교부금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지연과 AI시대 디지털 교육 접근성 악화 및 도농 격차 심화, 대입 수험생들의 맞춤형 학사행정 차질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-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교육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책임자	과 장	권삼수 (044-203-6636)
		담당자	사무관	황예슬 (moeseul@korea.kr)
	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	책임자	과 장	정민형 (044-214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양성철 (yg1102@korea.kr)